



화성문화원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10



화성의 효 이야기

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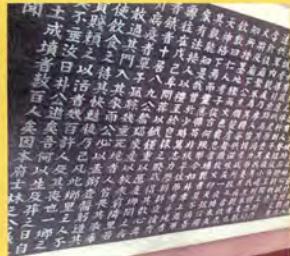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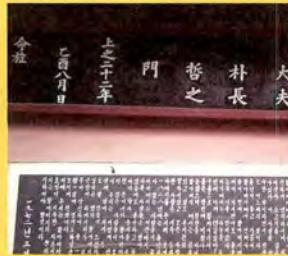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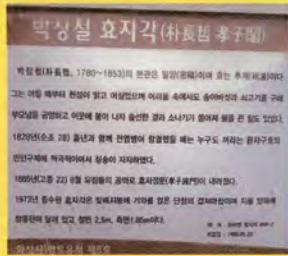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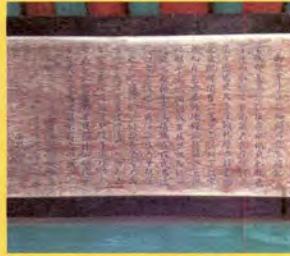


МАСРІЛ

학교 _____ 학년 _____ 반 _____의 책이에요



화성문화원



화성의 상징!



심볼마크

열려있는 창은 '길(Way), 기회(Opportunity), 가능성(Possibility)'이 열리는 곳, 즉 희망찬 내일이 펼쳐지는 화성시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심플하지만 강렬한 창의 역동적인 모습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높은 곳과 미래를 향해 생각이 열려있는 도시 화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여 세계속의 핵심거점도시로서의 성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로모션심볼

음양오행설에 따른 전통적 색상인 오방색을 활용, 화성시의 정체성 표현



시화 개나리



시조 비둘기



시목 은행나무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10

화성의 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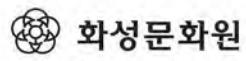
초판인쇄	2013년 12월 27일
발행	2013년 12월 31일
글쓴이	화성문화원 방문교사 고영익, 이옥희, 채명희, 최경순, 최영화, 최지화, 최정자
펴낸곳	화성문화원
펴낸이	우호철
주소	445-926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287-1
전화	031)353-6330
팩스	031)353-6331
홈페이지	www.hscoc.or.kr
편집디자인	맥토피아
찍은곳	맥피아 (CTP 인쇄) T 031)241-4540 F 031)257-7790

참고문헌

화성문화원 (화성의효·총·열 지승환 2004년)

ISBN 979-11-951630-1-4

비매품 이책은 화성시의 지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화성문화원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10

화성의 흐 이야기

세계문화유산

세계유산이란?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이를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 유산이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상징



가운데 사각형은 인간이 만든 형상이며 단(원)은 자연을 의미 사각형과 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밀접히 연관 지어져 있음을 나타내며 둑근 로고는 세계의 표상이며 보호의 심볼임. 전체적으로 인간이 만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상호보존 및 자연과 인간의 연관성을 상징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 1 불국사 · 석굴암(1995)
- 2 해인사장경판고(1995)
- 3 종묘(1995)
- 4 창덕궁(1997)
- 5 수원화성(1997)
- 6 경주역사유적지(2000)
- 7 고창 · 화순 · 강화 고인돌 유적지(2000)
- 8 제주도화산섬과 용암동굴 (2007)
- 9 조선왕릉(2009)
- 10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2010)

세계기록유산

- 1 훈민정음(1997)
- 2 조선왕조실록(1997)
- 3 직지심체요절(2001)
- 4 승정원일기(2001)
- 5 조선왕조의궤(2007)
- 6 해인사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 (2007)
- 7 동의보감(2009)
- 8 일성록(2011)
- 9 5 · 18기록물(2011)
- 10 난중일기(2013)
- 11 새마을운동 기록물(2013)

세계무형유산

- 1 종묘제례 및 제례악(2001)
- 2 판소리(2003)
- 3 강릉단오제(2005)
- 4 강강술래(2009)
- 5 남사당놀이(2009)
- 6 영산재(2009)
- 7 제주칠머리당 영등굿(2009)
- 8 처용무(2009)
- 9 가곡(2010)
- 10 대목장(2010)
- 11 매사냥(2010)
- 12 택견(2011)
- 13 줄타기(2011)
- 14 한산모시짜기(2011)
- 15 아리링(2012)
- 16 김장문화(2013)



창덕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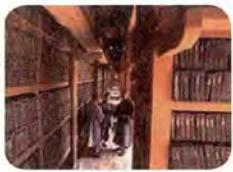
수원화성



종묘



불국사



해인사장경판고



고인돌 유적지



경주역사유적지



제주도



훈민정음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 실록



종묘제례 및 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내고장 화성과 문화유산 알림 방문교육

내 고장의 문화유산을 바로 알고 지키며, 문화유산에 대한 바른 인식과 함양을 목적으로 함.

모든 국민이 1문화제 1지킴이가 되는 그날까지~~

교육안내

1. 신청 및 문의 : 화성문화원(Tel 031-353-6330)
2. 교육대상 : 초등학교, 중등학교, 기타(교육을 원하는 기관)
3. 교육내용 : 융릉, 건릉, 용주사, 화성 등 문화유산
4. 대상지역 : 경인지역 및 기타지역
5. 교육방식 : 파워포인트 및 보조교재 활용



화성시 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 1 국보 | 용주범종 2 보물 |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복장전적
- 3 사적 | 융릉 · 건릉, 당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지, 화성 마하리 백제고분군
- 4 천연기념물 |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산지, 전곡리 물푸레나무, 화성 융릉 개비자나무
- 5 중요민속자료 | 정용채 가옥, 정용래 가옥, 정원채 고가

경기도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

- 1 금동향로, 청동향로
- 2 용주사 상량문
- 3 전적수사본
- 4 용주사병풍
- 5 용주사 대웅전 후불탱화
- 6 용주사 불설부모은중경
- 7 윤계선생 순절비
- 8 박세채영정
- 9 계갑일록 및 관련문서(5점)
- 10 화성 용주사 오층석탑
- 11 화성용주사대웅보전 목조삼세불좌상
- 12 화성 용주사목조감실
- 13 화성용주사지장전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시왕상 일괄
- 14 화성 용주사 삼장보살도
- 15 화성 용주사 중종
- 16 화성용주사 나무대성인로왕보살

민속자료 | 정원채 고가

기념물

- 1 남이장군묘
- 2 백천장선생묘
- 3 수원고읍성
- 4 화성남양동 신빈김씨묘
- 5 만년제
- 6 화성홍법리 남양홍씨묘역

문화재 자료

- 1 남양향교
- 2 용주사 대웅보전
- 3 용주사천보루
- 4 흥승인고가
- 5 남양풍화당
- 6 우성전 · 우하영 묘역
- 7 화성 용주사 목조불패
- 8 화성 용주사 목조소대
- 9 화성용주사 청동시루



용주범종



봉림사 목아미타불좌상



고정리 공룡알화석지



융릉 · 건릉



용주사 병풍



정용채 가옥



용주사 금동향로



용주사 대웅보전 후불탱화



한명윤 · 밀양박씨 총열각



남양홍씨 묘역



신빈김씨 묘역



용주사 천보루



남양향교



용주사 대웅보전



홍승인 고가



남이장군 묘

향토유적

- 1 안곡서원
- 2 최루백 효자각
- 3 이곤선생 효자문
- 4 홍담 효자각
- 5 한명윤 · 밀양 박씨 총열각
- 6 박장철 효자각
- 7 금산사
- 8 수촌교회
- 9 흥한묘역
- 10 최윤식 기념비문
- 11 남양홍씨 열녀정려문,
- 12 반남박씨 묘역
- 13 노작 홍사용 묘역
- 14 차운혁 충신정려문
- 15 연안차씨 집안문서
- 16 수성최씨 시조묘
- 17 반남박씨 박원도묘
- 18 정부인 영광정씨묘 출토유물
- 19 고령신씨 소장 고문헌
- 20 신면공 영광정씨정부인 화관비
- 21 조기수 묘역



수촌교회



금산사



남양홍씨 열녀정려문



안곡서원



이곤선생 효자문



최루백 효자비각



박장칠 효자각



홍담 효자각



노작 홍사용 묘역

HWASEONG CULTURAL CENTER

01	화성의 상징	4
02	세계문화유산	6
03	화성시문화재	8
04	화성의 변천사	13
05	화성 사람들 효 이야기	17
06	용주사와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21

참고문헌

화성의효·총·열 (지승환 2004년)



CONTENTS



07 효의 실천사례

33

1	최루백효자비각 화성시향토유적제2호 /봉담읍분천리	165-1
2	홍담효자각 화성시향토문화재제4호 /서신면 홍법리	39
3	김연호. 광주이씨효열정려문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41
4	안동권씨효부정려문 봉담읍 상기1리	43
5	박장철효자각 화성시 향토유적제6호/동탄면장지리	45
6	최일황 최우홍 효자정려문 장안면 수촌1리	47
7	기계유씨열녀정려문 장안면 독정리 산149-1	49
8	김광서효자정려문 양감면 사창2리 691	51
9	이곤효자문 화성시 향토유적제3호/ 봉담읍상리	53
10	남양홍씨열녀정려문 화성시 향토유적제12호 /송림동 산125	55
11	강덕휘 강기환 부안장씨정려문 정남면 괘랑3리 1078-1	57
12	정석규 달성서씨 정려문 신남동 산26-4	60
13	지상규효자정려문 서신면 상안1리 산87	62
14	남정유·남철충효정려문 매송면 송라1리 산122	63
15	우상대 효자정려문 정남면 망월리	66
16	정추효자정려문 매송면 어천리	68
17	서백호 효자비 남양동	70
18	홍술연 효자정려문 서신면 전곡리 101	73

내용누락

P.4-11



메모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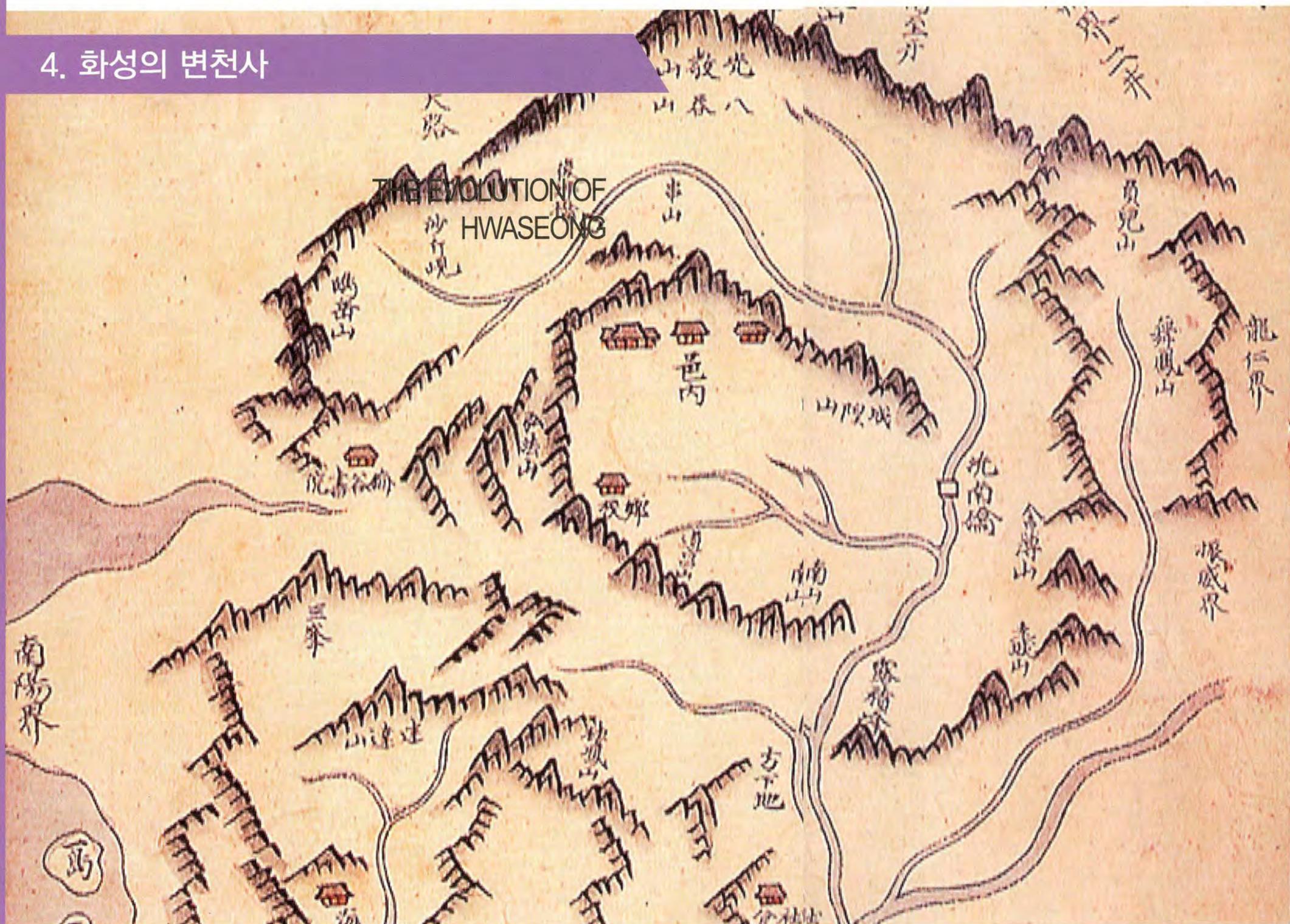
04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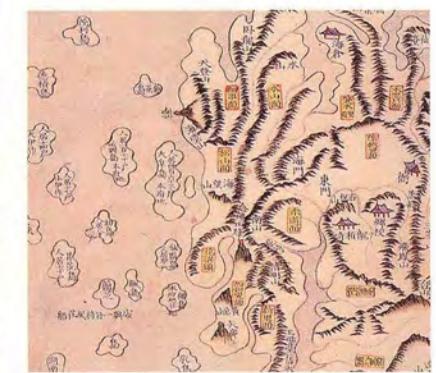
> 화성의 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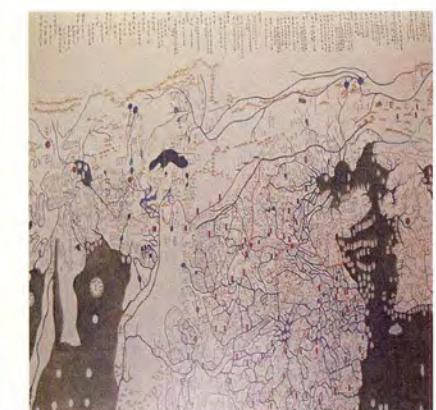
4. 화성의 변천사



수원
(팔도지도 1776년, 국립중앙도서관)



남양부
(여지도 18세기 중엽, 서울대학교 규장각)





메모하세요

05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 화성 사람들 효 이야기



5. 화성 사람들 효 이야기



화성시는 서울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 서쪽으로 향해서 광교산을 출발하여 내려오는 산줄기는 냇물을 흐르게 하고 냇물을 기대어 넓게 펼쳐진 들녘과 냇물이 만나는 황해바다를 가슴으로 품고 사는 인정 많고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고 있는 땅이다.

마음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입니다.

효 이야기는 촌부에서 평민이나 사대부 그리고 궁궐에서도 같은 생각으로 물질의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부모님을 향한 것은 똑같은 마음일 것이다.

효라 함은 보통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천륜이다. 효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성된 원초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하며 그 관계는 원만하고 올 바른게 지키고 보존하는 질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백행지원이라 했다.

인류가 시작 되면서 효는 행하여져 왔으며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문화와 문명이 달라지면서 효를 실천하는 방법과 물질은 변해도 인간의 본성 마음은 옛날이나 현재는 같다고 본다.



효경에 이르기를 신체발부수지부모 : 身(몸신) 體 (몸체) 髮 (터럭발), 膚 (살갗부)
受 (받을수) 之(어조사지), 父(아비부) 母 (어미모) 신체와 모발과 살갗은 부모에게
서 물려받은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며 소중한 것이다.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면 안되는 것이다.

효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내용이 자신의 육신과 부모의 육신
과 하나라는 생각으로 옛 어른들은 효를 실천하였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 修 (닦(을수) 身 (몸신) 齊 (가지런할제) 家 (집가) 治 (다스
릴치) 國 (나라국) 平 (평평할평)天 (하늘천) 下 (아래하)

자기 자신의 마음을 먼저 수양하고 나서 바른 마음으로 집안을 잘 다스리고 나면
나라의 일꾼이 돼서 나라의 공록을 먹으며 천하를 평정한다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
님에게서 물려받은 자신의 몸을 잘 가꾸어 효도를 하고 집안을 위하여 나라에 힘을
쓴다는 것이 효의 근본인 것이다.

21세기는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빠르게 변하고 다양한 국가들의 문화가 받아 들
여지고, 다른 문화가 생겨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래도 우리가 지키고 계승하여야
할 문화는 효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효자문(孝子門) : 효자가 효도를 각별히 할 때 나라에서 내렸던 기념비이다. 곁은
정자처럼 생겼으며 사람들 눈에 잘 띠는 거리에 세웠다. 후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
고 이 지역에 효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려 (旌閨) :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

열녀문 (烈女門) : 열녀(烈女)는 절개가 곧은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조선시대에는 여성 최고의 미덕으로서 한 남자만을 섬기는 절개를 꼽았다. 따라서 여성들은 남편이 죽은 후 오랜 세월 고난과 싸우며 정절을 지키거나 죽음을 무릅쓰고 정조를 지켰다.

효 문자도



효 문자도 에는 잉어, 죽순, 부채, 거문고를 그려 넣었다.

잉어는 진나라 때 왕상이 계모에게 한겨울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 드려서 그 마음이 아름답다.

죽순은 오나라맹종이 한겨울에 병든 노모를 위해 죽순을 구해드려 어머니의 병을 낳게 한 효 이야기이다.

부채는 중국 한나라 황량리 더운 여름 부모님의 베개를 부채질하여 미리 시원하게 해드린 효심이다.

거문고는 중국 순임금이 거문고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렸다는 순임금의 효성을 말한다.

06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 용주사와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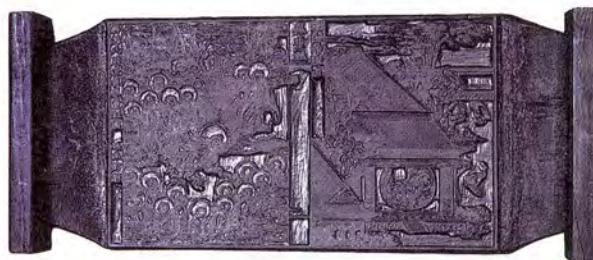


6. 용주사와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1796년 정조 20년 목판 42매 제작,
1802년 순조 2년 석판 24매 동판 7매 제작
2012년 2월 22일 보물 1754호 지정
(총 73매가 보물로 지정됨)



부모님의 십종은혜 불설대보 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 회탐수호은(懷眈守護恩 : 품에 품고 지켜주시는 은혜)

오랫동안의 인연이 귀중하여
금생에 와서 어머니 뱃속에 몸을 맡기네
일곱 달로 접어들어 육정이 열리네
몸이 무겁기는 큰 산과 같고
가고 서고 할 때마다 바람조차 겁을 내며
비단옷이라곤 입어 보지도 않고
단장하던 거울에는 먼지만 쌓여 있네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는 동안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한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2 임산수고은(臨產受苦恩 : 해산함에 고통을 이기시는 은혜)

잉태한 지 열 달이 다가오니
해산의 어려움이 아침저녁으로 임박 했네
나날이 중한 병든 사람 같고
나날이 정신이 혼미해 지네



무섭고 두려운 마음 표현하기 어려워
하염없이 눈물 흘려 웃깃을 적시네
슬픔을 머금은 채 친척에게 말하기를
이러다가 이 몸 죽을까 겁이 나오

태어날 아기는 어떤 모습일까, 몸은 건강할까,
어느 한 가지 모자라거나 이상한 곳은 없을까,
고통스럽지 않고 순조롭게 아기를 낳을 수는 없을까
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두려움이 쌓이게 된다.

3 생자망우은(生子忘憂恩 :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자비로우신 어머니 그대를 낳을 때에
오장이 모두 터지고 갈라지듯 했고
몸과 마음이 고통으로 혼미해 졌네
흐르는 피는 양을 잡은 듯하지만
낳은 아기 건강하단 말 들으니
반갑고 기쁜 마음 비길 데 없네
기쁜 마음 가라앉고 슬픈 마음 다시 일어나니
아픔과 괴로움이 온 몸에 사무치네

그리고 무사하게 아기를 낳았다는 근심은 사라져
새롭게 되살아 난 것 같을 것이다.



막 태어난 아기를 내려다보며 흐뭇해하는
어머니의 표정은 이를 말해준다

4 인고토감은(咽苦吐甘恩)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어 먹이시는 은혜
부모의 은혜 깊고도 중하여
사랑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네
좋은 음식 마다하니 무엇을 잡수시나
쓴 것만을 삼기셔도 그 얼굴 밝으 시네
지중하신 그 사랑에 솟는 정 한이 없고
은혜 더욱 깊으시어 더욱더 애절 하네
어린아이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자비로운 어머니 배고픔도 마다 않네
먹는 것도 아기가 배탈이 날까
찬 것은 데워서,
뜨거운 것은 식혀서 먹이며
좋은 것만을 골라 아기에게 먹인다.



어떤 사람이 농작물이 잘되지 않아
먹을 것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어버이를 위하여 자기 몸의 살을 도려내어
저미고 부셔뜨려 티끌과 같이 하고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고생한다고 해도
부모의 깊은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느니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벽화에 표현된 어머니의 표정은
한없이 평화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다.

5 회건취습은(廻乾就濕恩)

마른자리 아기 뉘고 젖은 자리 누우신 은혜
어머니의 몸은 모두 젖더라도
아기는 언제나 마른자리에 누이시네
젖으로 아기의 주린 배를 채워 주시고
비단 옷소매로 찬바람 막아 주시네.
한결같은 사랑으로 잠조차 폐하시고
아기의 재롱에서 기쁨을 찾으시네.
다만 아기를 편케 하려고
자비로운 어머니는 편함을 원치 않네.
이렇듯 헤아릴 수 없는 정성으로
밤낮없이 애쓰는 어머니의 은혜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다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아기가 재롱을 떠는 것을 보면



모든 괴로움을 잊고 마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다.



6 유포양육은(乳哺養育恩)

젖을 먹여 길러 주신 은혜
자비로우신 어머니 땅과 같고
근엄하신 아버지 하늘과 같네.
고루고루 펴신 은혜 똑같이 베풀시니
어버이의 아기 사랑 그 역시 한뜻일세.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살이며 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는 아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거룩한 자기희생의 실천자다. 여섯 번째인
'유포양육은', 즉 '젖을 먹여 길러 주신 은혜'라
하였고 그림도 역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7 세탁부정은(洗濯不淨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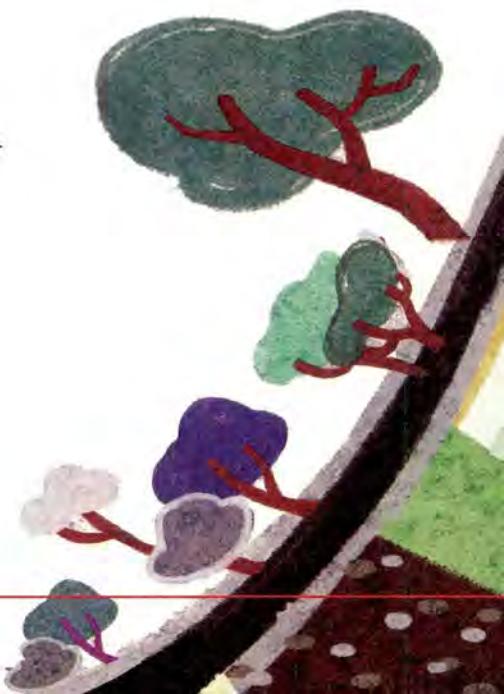
생각하니 지난날엔 고왔던 그 얼굴에
맵시 있는 자태는 깊고도 소담해라.
비취빛 두 눈썹은 벼들도 부끄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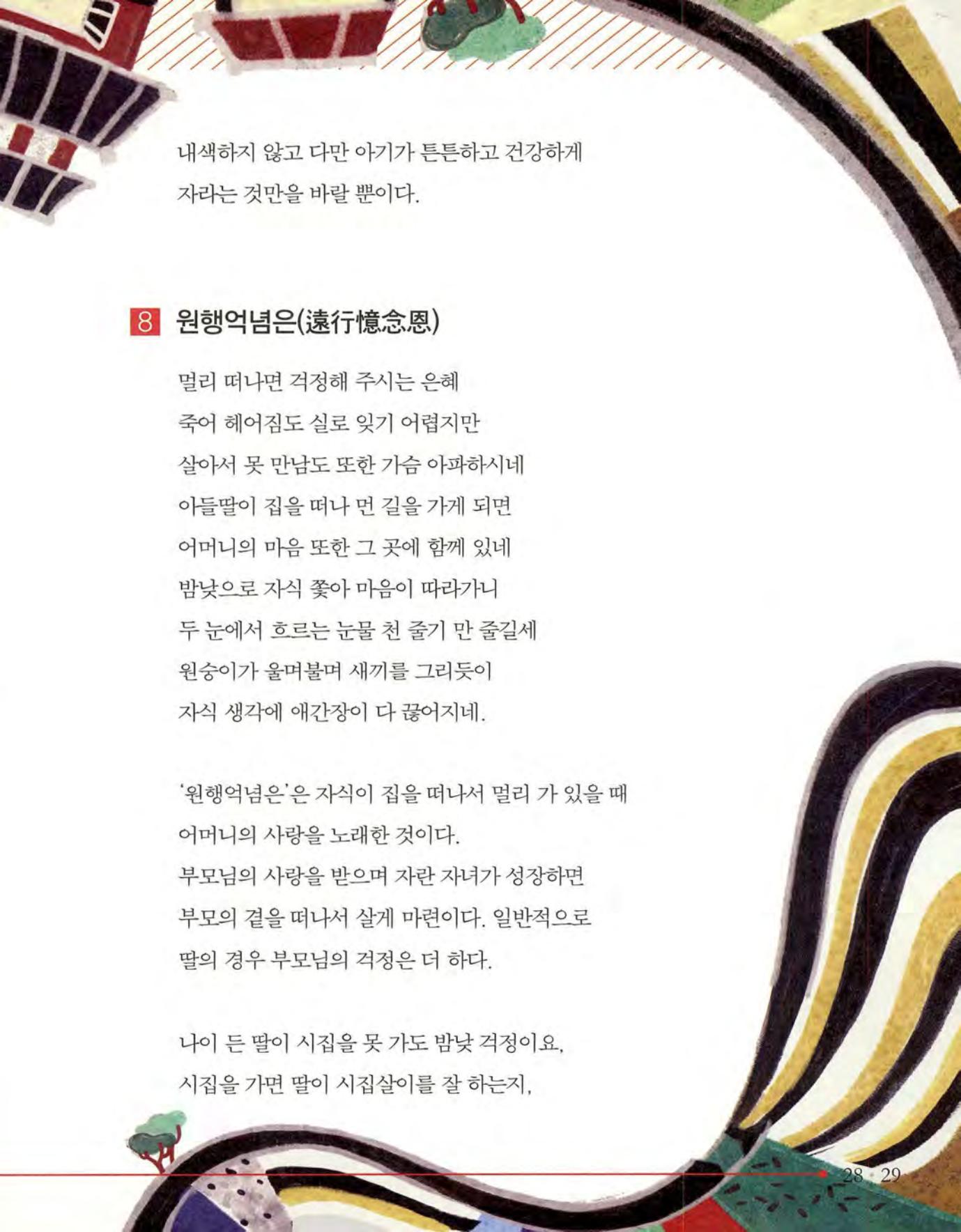
두 뺨은 분홍빛 연꽃보다 뛰어나네.
은혜 깊이 더할수록 고운 빛 바래지고
씻고 닦고 하시느라 손발이 거칠었네.
아들딸을 사랑하는 한마음 쏟는 동안
자비로운 어머니 주름살만 가득하네

'세탁부정은'에서는 앞의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와는 달리 어머니의 곱던 얼굴이 시들어 가는 모습을 먼저 노래했다.
누구나 젊었을 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살결은 희고 윤이 났으며, 붉은 두 뺨은
연분홍 연꽃 같았고 벼들가지 예쁜 몸과 함께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과 잘 어울렸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식 뒷바라지에
야위고 시들어 버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기를 훌륭히 키우기 위해서는
그만큼 정성을 쏟아야 했기 때문이다.

젖이나 우유를 토한 아기의 몸을 한번 씻을 것을
두 번 씻으면 그만큼 어머니의 고생은 늘어나지만
아기는 깨끗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이러한 아기에 대한 고생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다만 아기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을 바랄 뿐이다.

8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

멀리 떠나면 걱정해 주시는 은혜
죽어 헤어짐도 실로 잊기 어렵지만
살아서 못 만남도 또한 가슴 아파하시네
아들딸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게 되면
어머니의 마음 또한 그 곳에 함께 있네
밤낮으로 자식 쫓아 마음이 따라가니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 천 줄기 만 줄길세
원숭이가 울며불며 새끼를 그리듯이
자식 생각에 애간장이 다 끓어지네.

'원행억념은'은 자식이 집을 떠나서 멀리 가 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살게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딸의 경우 부모님의 걱정은 더 하다.

나이 든 딸이 시집을 못 가도 밤낮 걱정이요,
시집을 가면 딸이 시집살이를 잘 하는지,



고생은 안 하는지, 아들딸은 잘 가르고 있는지 등등

걱정이 태산 같다.

자식을 공부나 군대나 직장일 등으로 멀리 떠나보내면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된다.

어머니의 자식 생각을 원숭이에 비유한 것은
다음의 고사(古史) 때문이다.

진나라 환온이 상협이란 곳을 지날 때 따라가던
한 머슴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았다.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면서 강을 따라서
백 리를 가다가 마침내 애가 타서 배 위에 뛰어올라
그만 기절해서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가르고 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

이와 같이 '원행억념은'은 역시 외지로
떠나게 되거나 또는 떨어져 있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을 그려 놓았다.

9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

자식을 위해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 어버이의 크신 은혜 강 산과
같사오니

깊고 중한 그 은혜 갚을 길 아득하네.

자식 고생 대신 받기만 원하시니

자식이 고생하면 어머니 마음 편치 않네.

아들딸 먼 길 떠난다는 말을 듣고

다니다 밤이 되어 찬 곳에 눕지 않나

자식들이 잠시라고 고통을 받을 세라

어머니는 오래도록 마음을 졸이시네.

흔히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더 깊고 자상하다는 의미로 통한다.

그 가운데에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비할 수 없이 깊고 간절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두 어깨에 아버지, 어머니를

한꺼번에 메고 수미산을 백 천 번을 돌아도(周汚須彌)

부모의 은혜를 다 갚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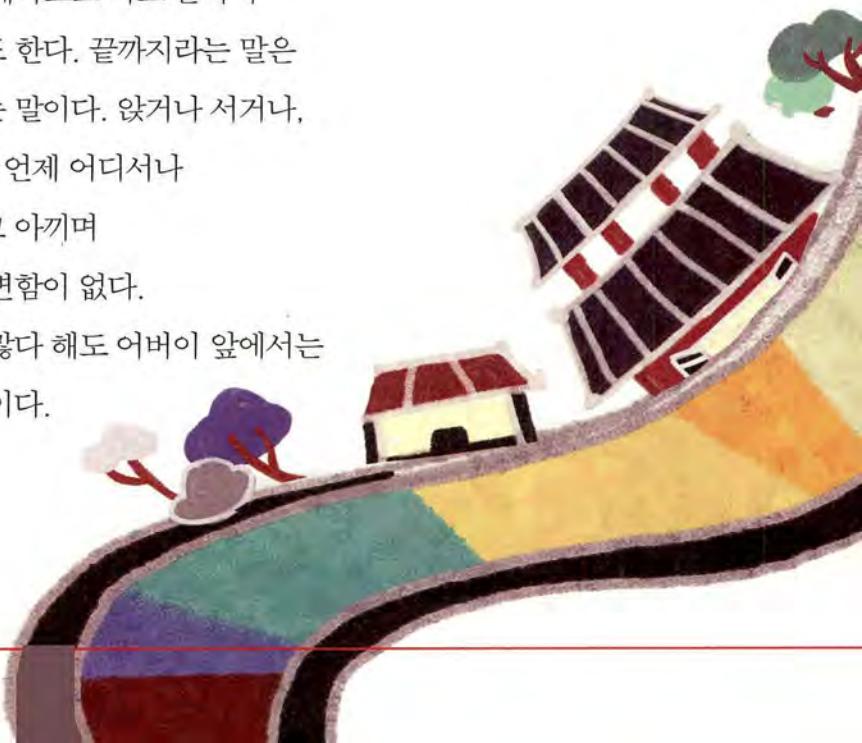


10 구경연민은(究竟憐愍恩)

끝까지 염려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은혜
어버이의 크신 은혜 깊고도 중하여라.
은혜와 사랑을 끝없이 베푸시네.
않고 서나 자식 쫓아 마음이 따라가니
멀거나 가깝거나 마음은 자식에게 있네.
어머니 연세 높아 백 살에 이르러도
팔십 된 자식을 항상 걱정하시네.
이 같은 부모 은혜 언제쯤 끊길런가
목숨이 다한 뒤 그때야 떠나리라.



‘구경연민은’은 어버이의 은혜가 계속해서
베풀어 이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달리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라고도 하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은혜라고도 한다. 끝까지라는 말은
계속처럼 죽을 때까지라는 말이다. 앓거나 서거나,
멀리 있거나 함께 있거나, 언제 어디서나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자식들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해도 어버이 앞에서는
늘 어린애일 뿐이기 때문이다.



07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 효의 실천사례



7. 효의 실천사례

1 최루백 효자비각 (崔婁伯 孝子碑閣)

소재지 : 화성시 향토유적 제2호/ 봉담읍 분천리 165-1

최루백은 고려시대 효자로서 그의 효행은 『고려사』「열전」, 『세종실록지리지』, 『삼강행실도』, 『동국여지승람』, 『오륜행실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동금원』에서도 실려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최루백의 효자비각은 고려 의종 때 최루백의 효행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비각이에요. 원래 비각은 봉담읍 수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현 위치 일대가 최루백의 사패지(임금이 하사한 전지)였다고 해요.

현재의 화강암 정려 비는 조선 숙종 때 세워진 것이예요.

효자비 앞면에는 '고려효자한림학사최루백지려'라고 새겨져 있어요. 효자비의 상층부는 몸체와 별도의 돌로 조성된 투구형의 단조로운 조각형태이며, 장방형의 받침대를 갖추었어요. 뒷면에는 '탁행기부시이도'라 하여 그 내용이 새겨져 있어요.

비각 뒤쪽 7m 지점에는 최루백의 아버지 최상저의 유허비 비각이 건립되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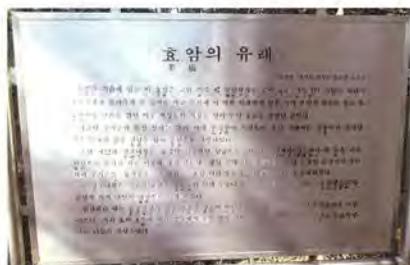
최상저와 최루백의 묘소에 대해 현재까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금석문추보』에는 최루백 묘지명의 내용이 2쪽에 걸쳐 실려 있는데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최루백의 묘소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지만 최루백의 묘지명이 발굴된 장소 및 시기를 밝히면 그 수수께끼를 풀 수도 있을 것이예요.

최루백의 본관은 수원이며 마을호장을 지낸 최상저의 아들이에요. 최루백은 문과에 급제하였고 의종 때 기거사인에 승진되었어요. 또 1155년(의종 9)에는 평장사 최자영, 지문하성사 양원중 등과 함께 국정에 관한 왕의 자문에 응하기도 했어요. 1158년(의종 12)에는 국자사업으로서 국자제주 염직량과 함께 생원시를 맡아보기도 했으며 후에 한림학사가 되었고, 사후에는 '효공'이란 시호를 받았어요.

최루백의 아버지 최상저는 성품이 어질고 재주가 있어 활쏘기에 능하여 틈이 있을 때마다 사냥을 다녔어요. 최루백의 나이 15세 때, 아버지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호랑이에 잡혀 먹혔어요.

그러자 최루백은 “자식 된 도리로서 어찌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않고 견딘단 말씀입니다”라고 말한 뒤 어머니의 만류를 뿐리치며 도끼를 들고 단신으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최루백은 호랑이의 자취를 더듬어 가던 중 아버지를 잡아먹고 배가 불러 누워 있는 호랑이를 발견하였어요.



효암-호랑이가 누워있던 바위

최루백은 호랑이 앞에 다가가면서 “네 어찌 하늘같이 받들고 있는 나의 아버지를 네가 무참히도 해쳤느냐. 나는 너를 잡아먹어야겠다.”하고 꾸짖었어요. 이 말에 호랑이는 그 자리에서 이내 꼬리를 흔들면서 납작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최루백은 호랑이를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는 호랑이의 배를 갈라서 아버지의 뼈와 살을 꺼내어 정결한 그릇에 담고 홍법산 서쪽에 안장하여 드렸어요. 또한 호랑이 고기는 독에 담아서 냇물 가운데 묻고 아버지 산소 옆에 여막을 짓고 삼년간 시묘 살이를 하였어요. 최루백이 시묘 살이를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잠시 잠이 들었는데 아버지의 혼령이 나타나 시를읊었어요.

가시덩굴 헤치고 효자의 여막에 이르니
마음 속 느끼는 것이 많아 눈물이 그치지 않네
흙 쪘다가 날마다 무덤 위에 앉으니
이 뜻 아는 건 밝은 달과 맑은 바람뿐이네
살아서 잘 봉양하고 죽어서 지켜주니
그 누가 효에 처음과 마침이 없다 하리요

최루백은 삼년 시묘 살이를 마치고 항아리에 담아 묻었던 호랑이 고기를 꺼내어 모두 먹어버렸다고 전하고 있어요.

정몽주는 이러한 최루백을 가리켜 ‘동방의 유종(유학에 통달하고 품행에 모범을 보여 우러름을 받는 학자)’이라 칭송하였으며, 세종대왕은『삼강행실도』에 그의 효행을 신게 하여 만인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어요.

또한, 정조는 현릉원(지금의 응릉)을 조성하면서 남쪽에 있던 최루백의 비각을 서남쪽 홍법산 기슭으로 옮겼으며 최루백이 태어난 마을을 효자무골로, 호랑이를 잡은

뒷산의 큰 바위를 효암이라 명명하고 그의 자손에게 부역을 면해 주었다고 해요.

최루백이 장성하여 혼인을 하였고, 최루백이 청렴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루백의 아내의 묘지석에 남긴 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내는 사람됨이 조심스럽고 정숙했으며 자못 문자를 알아 대의에 밝았고 말씨, 용모, 일솜씨가 여느 여인보다 뛰어났다. 부녀자의 도리에 부지런히 힘써내 돌아가신 어머님을 효성껏 보양했고 친척들의 경조사를 힘써 살피니... 훌륭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염경애는 길쌈과 품앗이를 통해 가난한 살림을 꾸려 나갔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갈 때는 갑옷 위에 입는 옷인 자주색 전포를 미리 만들어 보내고 전장에 음식도 보냈고 전해지고 있어요. 또한, 시아버지는 생전에 섬겨 보지 못했다 하여 명절이나 복일이 되면 몸소 제물을 드리고 평소 저고리나 바지 등을 지어 두었다가 제삿날이 되면 그 옷을 영전에 바쳤어요. 이처럼 헌신적인 아내의 사랑은 남편 최루백의 관직 생활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고, 이들 부부는 서로간의 깊은 사랑으로 4남 2녀의 자녀 또한 훌륭하게 키웠어요.

염경애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이행하였기에 남편 최루백으로 하여금 올바른 관직의 길을 걷게 하였고, 자녀들 또한 국가에 필요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이예요.

이처럼 최루백은 젊어서는 효자로 이름을 높였고, 결혼 후에는 아내의 도움으로 청렴한 관직 생활로 일관했던 인물로 역사에 평가를 받고 있어요.

최루백은 부인에 대한 사랑이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는데, 아내인 염경애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아내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긴 묘지명을 남편이 직접 글을 쓴 경우는 염경애의 묘지석이 유일해요. 최루백의 글씨체는 그의 부인 염경애의 묘지명에 따른 것으로 『해동역대명기필보』에 최루백의 필적 52자가 전해지고 있어요.



알고
가기

『해동역대명가필보』

삼국시대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역대필적을 엮은 책으로 1926년 백두용, 정도영이 6책으로 만들었어요. 표제는 오세창이 썼으나 서문은 누가 쓴 것인지 알 수 없고 우리 역사 4,000년간의 고금명가의 필적 700점을 모았으며, 혹 주옥같은 것이 빠졌을지도 몰라 완벽은 훗일을 기한다고 했어요. 이 책은 글씨의 변천과 인물들의 필적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서예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에요.

조선시대 임금님은 365일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단, 신하인 정1품이 죽으면 3일, 2품이 죽으면 2일, 3품이 죽으면 1일을 조의를 표하며 쉽니다.

도움을 주신 분 : 최관조, (수원 호매실동), 최일원 (봉담읍 수기리)

2 홍담 효자각 (洪疊 孝子閣)

지정번호 : 향토문화재 제 4호

지정연월일 : 1986년 5월 20일

소재지 : 서신면 흥법리 산32

시대 : 조선시대

분류 : 효자각

홍담 (1509~1576)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남양이며 자는 태허예요. 정랑 홍언광의 아들이며, 영의정 홍언필의 조카이고, 시호는 정효예요.

23세에 사마시에 합격한 후 문과에 급제, 여러 해 동안에 동부승지 좌승지 등을 역임하였어요. 44세 때에는 청백리에 녹선되고, 45세에는 전라도 관찰사, 47세에는 사은사로 북경에 다녀왔으며 48세 후에는 대사헌 3번과 병조참판, 예조참판, 경기도관찰사 52세 후에는 경상도관찰사, 한성판윤, 함경도관찰사, 호조판서, 병조판서 2번, 형조판서, 예조판서, 이조판서, 좌참찬을 두루 지냈으며 1576년 9월 2일에 세상을 떠났는데 선조는 슬퍼하며 2일간 조회를 거두고 부의를 보내어 조문하였어요.

홍담은 홍언광과 남원 양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 조씨 품에서 자랐는데 일찍이 홍담의 등을 어루만지며 아들 홍언광에게 이르기를 ‘이 아이가 도량이 범상하지 않으니 나중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하였어요.

홍담은 말을 배우면서부터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이와 같이 할머니 품에서 성장하

다가 겨우 9살에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빈소를 떠나지 않았으며 상여가 떠날 때는 상여 줄을 잡고 흐느껴 우니 어른들은 이를 보고 어린 것이 가엾다 하며 말렸으나 강변 까지 따라가며 그치지 않아서 보는 사람 모두 신통하게 여겼어요.

영의정을 2번 지낸 큰아버지 홍언필과 아버지를 따라 3년간의 여막 살이를 마치 어른같이 하였어요. 홍언필은 홍담이 할머니를 어머니와 같이 추모함을 가상히 여겨 시를 지어 주었는데 몇 년 뒤 시험 삼아 물었더니 하나도 틀리지 않게 끓어 앉아서 외웠어요.

홍담은 아버지와 계모 이씨를 섬김에 있어 입에 맞는 음식을 갖추어 들였고, 공경과 성의를 다 하였어요.

나갈 때와 돌아오면 보고 드리기를 바쁠 때나 늙어서도 단 하루도 그만두는 일이 없이 36년간을 모셨어요. 계모이씨가 돌아가시자 상중에 몸이 상할 정도로 슬퍼하며 아버지 때와 같이 여묘를 하는 등 계모 섬기기를 효성스럽게 하고 상중에 예를 극진히 지켰어요.

이러함에도 그는 일체의 가정생활에 소홀함이 없었으며 공무에 부지런하며 늙어서도 게을리 하는 일이 없으므로 세상에서 어진 사대부라고 일컬었어요. 돌아가신 뒤 마을사람들이 그의 효행을 나라에 보고하여 왕명으로 고향인 남양부에 효자정문을 세웠어요.



3 김연호 · 광주이씨 효열정려문(金淵浩 · 廣州李氏 孝烈旌閭門)

지정연월일 : 1989년 5월 25일

소재지 : 화성시 장안면 독정3리 거목마을 입구

시대 : 조선시대

구체적인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지만 『안동김씨군 사공파보』에 의하면 슬하에 1남1녀를 두었으며 김연호는 효행으로, 광주이씨는 열녀로 정려를 받은 것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1827년(순조27) 지금의 수촌리 726번지 방축말에 쌍액을 받아 건립하였는데 1919년 당시 화성 전역에서 독립운동이 거세게 전개되었는데 그때 일본 병들이 4월 15일 수촌리 마을로 들어와 마을 전체를 방화하여 수촌교회를 비롯하여 42채의 가옥 중 38채가 불타는 와중에 그동안 효열문을 관리해왔던 군사공 18세손인 김응칠, 김응팔은 집과 더불어 정려각이 불에 붙자 간신히 현판만 떼어 충남 논산군 두마면 정장리로 피난하였어요. 이때 자료들이 모두 불에 타버려 기록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없고 병환이 들은 부모의 쾌유를 위해 가난한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음식을 장만해드렸으며 몸에 좋다고 해 토룡탕까지 끓여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선조들로부터 들었다는 후손의 이야기만 있어요.

김응칠, 응팔 두 분은 1년 후 돌아와 방축말 앞쪽에 자리 잡은 용두산의 열녀 광주이씨의 묘 편에 효열문을 초가지붕으로 중건하였고 그 후 풍우에 퇴락이 심하여 1989년 음5월25일에 종친들의 후원으로 현 위치인 장안면 독정리 거목골에 옮겨 건립하였어요.



도움을 주신 분 : 김재용

4 안동권씨 효부 정려문 (安東權氏 孝婦 旌閭門)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기1리 호련마을

그녀에 대한 행적은 전주이씨 안양군파 세보에 전하는 몇 줄의 기록이 전부이며 구전으로 후대에 전해져 오는 것 또한 확실한 것이 없어요.

세보의 기록에 의하면 성균관 생원인 이성규(1684.2.1~1762.5.28)의 부인 안동권씨는 따뜻한 식사와 의복 그리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게 늘 안부를 전하면서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드렸어요. 어느 날 암행어사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그 효행을 보고 탄복하여 여러 차례 조정에 알리어 조정에서 효부라는 것을 인정하여 살아있는 동안 (생전)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1783년 정려문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전해오는 얘기로는 연못도 있고 향나무도 있었다고 하는데 종손이 자손이 없어서 가문을 계승할 사람이 없어 관리가 어려워 지금은 안타깝게도 어느 승마클럽 처마 밑에 현판만 존재하고 있어요.

전각이 없어서 찾기가 어려웠고 동네 분들도 모르시는 분이 많았어요.

도움을 주신 분 : 이병우(상기리 호련마을)





알고
가기

세보

가문의 계보(系譜)를 대대로 모아 엮은 책을 말함.



5 박장철 효자각 (朴長哲 孝子閣)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6호

지정연월일 : 1986년 5월 20

소장 : 동탄면 박치원

소재지 : 화성시 동탄면 장지리 493-2

시대 : 조선시대

분류 : 효자각

박장철(정조4년 1780~철종4년 1853)의 자는 의지이고 호는 추계예요.

그는 어릴 적부터 천성이 맑고 어질었으며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어요.

어느 날 박장철 아버지께서 갑작스레 병환이 들었어요.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던 박장철은 밤낮없이 간호를 하였으나 아버지의 병환은
별다른 차도가 없었어요. 박장철은 없는 살림이라 추운겨울에 냉수로 목욕하고 아
버지 병환이 빨리 회복되기를 빌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병환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좋다는 약은 모두 구해 드렸으나 병세
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이때 어느 의원이 송이버섯과 쇠고기를 구해 잡수시면 좋다
고 하였어요. 엄동설한에 버섯을 구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버지의 병환을 빨리
고쳐 드리고자 장터로 달려가서 송이버섯과 쇠고기를 구했어요.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한밤중이라 산골짜기 길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어둠속에서
스님 한분이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스님은 같은 방향이라며 함께 동행 하자고 하였
어요. 어느덧 스님과 동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집에 다다르게 되었어

요. 조금 뒤쳐진 듯한 스님을 뒤틀어보니 스님은 보이지 않고 호랑이 한 마리가 고개를 숙이고 오던 길로 어슬렁거리며 어둠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이었어요.

원래 호랑이는 효도를 할 줄 아는 동물인 줄 알았으나 자기에게 직접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위험한 밤길을 인도하여 부친 병환에 힘쓰게 한 것이였어요.

박장철의 부친은 아들이 어렵게 구해드린 송이버섯과 육류를 먹은 다음 병세가 좋아져서 기력을 회복하였어요. 이 사실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박장철의 지극한 효성을 칭찬하였어요.

순조 28년(1828)에는 흉년과 함께 전염병이 돌자 누구도 꺼리는 환자 구호와 빈민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칭송이 자자하였어요. 그가 별세하자 그의 효행과 선행을 나라에 알려 고종 22년(1885)에 효자정문의 특지가 내려져 그 해 8월에 정각이 건립 되었어요.

효자 정려문 현액이 달린 현 정문 각은 1972에 중수한 것으로 맞배지붕에 한식 기와를 얹은 단청의 겹쳐마집이며, 방풍판이 달려 있어요. 내부에는 현판과 효자문의 유래를 알리는 표지 문이 있어요. 규모는 정면 2.5m, 측면 1.85m이며 주위에는 벽돌 담장이 둘려져 있어요.

도움을 주신 분 : 박상일 (동탄면 장지리)



6 최일황 · 최우홍 효자정려문 (崔一晃 · 崔遇鴻 孝子旌閭門)

소재지 : 장안면 수촌1리

최일황(1772~1818)의 본관은 수성이며 자는 광중 이예요.

족보상에는 1799년에 무과에 급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1802년 경상도문경진관조령 별장(현 9급 서기보)을 지냈어요. 1832(순조32)에 효행으로 정려문을 세웠어요. 1833년에 증직이 내려졌어요.



9급 서기보란?

간단한 업무의 처리나 실무를 보좌하는 공무원들입니다.

최우홍(1794~1871)은 최일황의 아들로서 족보상에 게재된 이름은 최우태 이예요. 자는 원회이며 호는 당서예요. 최우홍의 효행은 당시 수원지역의 사람들의 상언과 수원 유수부의 장계를 올려 1872년 6월에 정려를 받아 쌍액으로 건립하였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최일황과 최우홍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더욱이 직계자손에 대한 행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수성최씨 대종회와 관련된 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셔서 수성최씨 개령공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움을 주신 분 : 최상일 (동탄면 장지리)



7 기계유씨 열녀 정려문 (紀溪俞氏 烈女 旌閭門)

소재지 : 화성시 장안면 독정리

기계유씨 (1745.1.17~1768.1.19) 군사공파 김익상 (1747.12.27~1766.7.2)의 부인으로 화성시 향남면 구문천리에서 출생하였어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품성이 착하고 온순하여 귀여움을 받고 자랐으며 기품 있는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출가하여 1년도 못되어서 부군(남편) 김익상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해매게 되었어요. 유씨 부인은 백방으로 약을 구해다가 간병을 했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슬하에 자식도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웃 마을에 혼자 사는 홀아비가 보쌈을 하려고 한밤중에 방문을 열고 들여다보자 이를 알아차리고 유씨 부인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뒷문으로 도망을 가서 몸을 피했어요. 뒷문으로 도망 나온 유씨 부인은 자신을 몸을 지키는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은 집안에 있는 우물로 들어가는 길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물 속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기계 유씨의 자결은 부인을 열녀로 추앙하고 칭송받게 했으며 안동김씨 문중에서 기계 유씨의 정절을 후손에게 전하고자 1783년(정조7년)에 생가에 열녀정문을 걸립하였으나 건물이 노후 되어 1984년 유택이 있는 독정리로 정문이 옮겨 지어졌어요. 정려문 위쪽에 기계 유씨와 그의 남편 김익상의 묘가 합장 되어있어요.



열녀 학생 안동김 익상처 유인기계유씨지문

도움을 주신 분 : 김재성 56세 (장안면 독정리), 김옥묵 78세 (장안면 독정리)

8 김광서 효자 정려문 (金光瑞 孝子 旌閭門)

소재지 : 화성시 양감면 사창2리

화성시 양감면 사창2리 마을 입구 개울 다리에서 오른쪽으로 200m를 들어가면 서당마을이 있었어요.

서당을 지나 데려가면 마을 작은 사거리가 나오는데 오른 쪽으로 돌아서면 큰 느티 나무가 있는 집이예요.

김광서 효자 정려문이 집 대문에 걸려있어요.

광산김씨 공안공파는 임진왜란이후 서울에서 사창골로 내려와 자리를 잡았어요. 김광서의 집은 초가집이었는데 지붕개량으로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스레이트 지붕을 올렸으며 안채는 헐어 내고 그 자리에 양옥집을 새로 지었어요. 정려문이 걸려있는 사랑채는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어요.

효자 김광서 평소에 자식 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극진히 보살펴 드리는 효행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어요. 그러던 중 그의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맬 때 단지(현혈)를 하고 허벅지 살을 잘라 부모님께 공양을 하였어요.

김광서의 후손인 김선기 용이 어린 시절부터 대문에 걸려있는 효자정려를 보고 성장을 하였어요. 안타깝게도 김광서의 직계자손의 대가 끊겨 자료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으며 단지 김선기옹의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문 현판에는 효자 학생 광산 김광서 지려라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김광서의 정문

을 내린 해는 고종 7년 1870년이라고 고쳐졌어요.



효자 희통훈대부가현부특평김공광서지려
상지 7년 경오년 3월

도움 주신 분 : 김선기옹 현 87세 (사창2리)

9 이곤 효자문 (李琨 孝子門)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3호

지정연월일 : 1986년 5월 20

소재지 : 화성시 봉담읍 상리

시대 : 조선시대

분류 : 효자문

이곤 (1601~?) 의본관은 원주이며 과의 교의공 (果義 校尉公) 이응한의 아들이예요. 자는 숙보이며 원래이름은 장 章 이에요.

1669년 (현종 10년) 식년시 병과에 19등으로 급제하였어요.

문과에 급제한 뒤 병조정랑, 의령 보령 옹진 음죽등의 현감을 지냈어요. 이곤은 외직에 재임하면서도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였어요.

부모가 노환으로 병석에 누워 추운 겨울날 잉어와 오이가 먹고 싶다고 하자 이곤은 백방으로 온갖 노력을 다하였어요. 이곤의 지성에 천지신령도 감동하여 마침내 강의 얼음 속에서 잉어를 구할 수 있었어요. 또한 깊은 산속의 덩굴 속에 매달려 있는 오이를 찾을 수 있어서 부모에게 공경을 할 수 있었어요.

그의 극진한 효성은 나라에 까지 알려져 1737년 영조 13년 왕으로부터 효행상과 효자정문을 하사 받았다고 전해져요. 그러나 현재 정문안에 걸린 현판은 1883년 (고종20년) 9월의 것이에요.

본래의 정문은 목조였으나 비바람에 퇴락되어 1982년 10월 벽돌로 만들고 맷배 지붕에 기와를 얹었어요. 이곤의 묘소는 성남시에 있었으나 개발로 인하여 그의 아

버지와 더불어 문중에서 화장을 하였어요.



알고
자기

교의공이라는 관직은 건국 직후 처음으로 관제를 정할 때 충의교위로
하였던 것을 1466년(세조 12) 과의교위로 개칭하였다.)

식년시 (고려 및 조선 시대에 60갑자 가운데

자(子) • 묘(卯) • 오(吾) • 유(酉)가 드는 해에 정기적으로 치룬 과거 시험.

3년에 한 번씩 돌아오며 조선 시대에는 대비과라고도 하였음.)

(도움을 주신분: 이석연 李石淵 49세 봉담읍상2리 / 이병세 李秉世 52세
봉담읍상2리)

도움을 주신 분 : 이석연 (봉담읍 상기 2리), 이병세 (봉담읍상기2리)



10 남양홍씨 열녀 정려문 (南陽洪氏 烈女 旌閨門)

지정번호 : 향토유적 제12호

지정연월일 : 1999년

소재지 : 화성시 송림동 165-1

시대 : 조선시대

분류 : 정려문

남양홍씨 열려문은 조선 영조 때 승정원 우승지를 역임하였던 최태형 (1718~1783)의 부인 남양 홍씨 (1737~1783)의 순절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문이에요.

최태형의 본관은 삭녕으로 조선후기의 문관이다. 삭녕 최씨 대동보에 의하면 최태형은 영조 때 급제하여 정조때까지 관료생활을 하였으며 승지를 역임하였어요.

부인 남양 홍씨는 조선시대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경현공 홍섬의 5대손인 선릉 참봉 홍신상의 딸이며. 남양 홍 씨는 남편인 최태형의 병이 위독해지자 천리 길이 멀다 않고 약을 구하여 밤낮으로 간병을 하였어요. 또한 하늘에 기도하고 사당에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할 일이 많은 남편을 대신하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조상님께 빌기도 하였어요. 남양 홍 씨는 단지주혈 까지 하여 남편의 목숨을 연장하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결국 애탠는 부인의 뜻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1783년 8월29일 최태형이 사망하였어요 그리고 두 달 후 1983년 10월13일 부인도 자결을 하였어요. 그래서 남편과 동혈합장 하였어요.

1787년 정조11년 열려 정문의 명정이 내려졌어요. 이듬해 묘아래 정문을 건립하였어요.

1925년 5월에 중건하였으나 풍우로 퇴락하여 2002년 화성시에서 새롭게 단장을

하였다. 현재의 정문은 한식기와를 잇는 단청건물이며 그 규모는 정면 2,85m, 측면 2,75m이다. 열녀정려문은 사마공파 종중에서 관리한다.

도움 주신 분 : 최성영 종손 76세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최도학 74세 사마공파 대종회 사무총장



11 강덕휘 · 강기환 부안장씨 정려문 (姜德輝 姜璣煥 扶安張氏 旌閭門)

소재지 : 정남면 패랑3리 1078-1

정남면 패랑3리 진주 강 씨 박사공파 집안은 조선 초기의 문신이자 세종대로부터 고위 관직을 두루거친 강희맹의 후손으로 15대 강극서 이후로 패랑리에 청착해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패랑3리 강영구 73세 집 뒤로 강덕휘 (1700.10.9일 ~1768.12.24)일

강기환 (1740.5.20~ 1814.10.6) 그리고 강재형 (1765.1828)의 처 부안 장씨 (1769~1831) 의 효를 기리기 위한 효자 정려 세 개가 세워져있어요.

박사공파 족보에 의하면 강덕휘는 도암이재 1680~1746) 의 문임으로 1819년 (순조 19년 3월26일 화성의 유학 김낙승 들이 상언을 올려 그의 효성에 대해 포상하기를 간청하였고 같은 해 9월28일 예조에서 각도의 충, 효, 열, 관련 포상자들을 조사 할 때 그 명단에 들어 추증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후 1855년 철종 6년에 효자정려를 받게 되고 1890(고종 27년)에는 이조판서로 추증되었어요.

현판글씨는 숭정원년인 4 己卯 1628) 년을 기준으로 네 번째 을묘 년인 1855년에 정려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요.

「일성록 日省錄」에 의하면 강휘덕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어요.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일부자리를 깨끗하게 해드리고 정성껏 약이며 달여 드렸으며 제절에 맞게 맛있는 음식도 손수 해서 드렸어요. 이렇게 10년을 하루같이 목욕재계하고 어머니의 병환이 낳기를 하늘에 기도를 드렸어요. 또한 병이 위중해지자 손가락을 베어 피를 수혈해 드렸지만 끝내 세상을 하직

하셨어요.

이에 강덕휘는 3년 동안 마을로부터 5 리 떨어진 어머니묘소에서 시묘 살이를 하며 매일 하루 세 번씩 죽을 끓여 바쳐 어머니가 맛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울 때나 더울 때나 하루 세 번 왕곡 하였어요.

강기환은 강덕휘의 셋째 아들로 자는 기옥, 호는 동암으로 역시 효로써 교관에 추종되고 1855년 (철종 6년)에 부친과 함께 정려를 받았어요. 1890년 (고종 27년)에는 경행으로 정3품 보덕으로 추증되었어요.

강기환은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화산으로 옮길 때 당시 진주 강씨 소유의 산 까지 나라에서 징발하고자 하였으나 그 부당함의 취지로 상소를 올려 약 3천여 평의 당을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한편 부안 장씨는 강기환의 둘째 아들 강재형의 부인으로 시부모를 정성스럽게 모셔서 1841년 현종7년에 효부정려를 받았어요.

특히 강재형은 그 가 사망하였을 당시 그를 추모하는 만장 수십 개가 줄을 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올 만큼 지역에서 학행으로 명망이 높았다고 해요.

도움 주신 분 : 강영구 73세 (정남면 괘랑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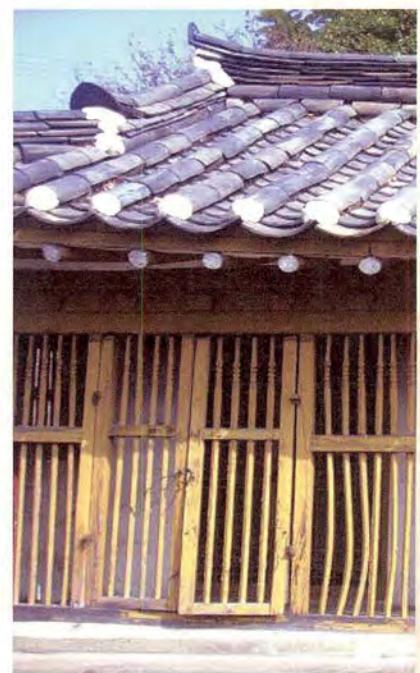
알고
가기

경행 : 예의범절에 구애됨이 없이 곧이 곧대로 행동함

이조판서 : 조선 시대, 육조의 하나인 이조의 으뜸 벼슬

왕곡 : 왕 (이따금) 곡(울다)

예조 [역사] 조선시대, 육조의 하나. 예악이나제사, 연향, 조빙, 학교, 과거의 일을 맡아 보았다. 1392(태조1)년에 두었고 1894(고종31)년에 없앴다.



12 정석규 달성서씨 정려문 (鄭錫揆 達成徐氏 旌閭門)

소재지 : 화성시 신남동 산26-4

정서규. 달성서씨 정려문은 어머니를 향한 부부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1884년 (고종21년) 세워졌어요.

나주가 본관인 정석규(1731~17060와 그의 부인 달성서씨 (1729~1796)은 성품이 어질고 부모를 섬김에 소홀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드리는데 향리에서 으뜸으로 생각하는 효자. 효부예요.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정석규는 평상시에도 천성적으로 효행의 근본을 실천해 오던 모범적인 가장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병환이 들자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밤낮으로 지극한 정성으로 약시중을 들었으며 온갖 마음을 쏟아 돌보았어요. 그러던 중 어머니가 병환이 갑자기 위중해지자 정석규와 그 부인은 망설임도 없이 단지를 하여 병이 쇄차하였다고 해요.

마을에서는 이들 부부의 효행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부부는 3년 동안 시묘 살이를 하였어요. 잠시 집에 가려고 밤길을 걷던 중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자기의 눈빛으로 밤길을 환하게 비추어 무사히 그의 집까지 바래다주었다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정씨 성을 가진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효성이 지극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을 지으러 매일 남양읍내

까지 다녀야 했어요. 즉 낮에는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밤늦게 산길을 타고 읍내로 매일 약을 지어 와야 했던 것이지요.

여느 날과 같이 약을 지러 산길을 가고 있던 중 갑자기 어흥 하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 한 마리가 앞길을 가로 막았어요. 그리고 등을 내밀고 타라고 하는 시늉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네가 나를 태워 주려는 냐?”

그 말에 호랑이는 고객을 끄덕였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 금방 남양읍내까지 정효자를 데려다 주었어요. 그리고 약을 다 지어 가지고 나오자 호랑이는 기다렸다는 듯 나타나서 집까지 태워다 주었지요. 그 이후부터 호랑이가 매일 태워다 주어 약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그 후 어머니는 병이 말끔히 나았는데 나라에서 그 효행을 알고 정려를 내려 주셨어요. 정문안에는 두 개의 정려가 있어요.

도움 주신 분 : 정용원, 정인범, 정홍범님



13 지상규 효자 정려문 (池相奎 孝子 旌閭門)

소재지 : 화성시 서신면 상안1리 산87
상안 정미소 미곡처리장

지상규에 대한 기록은 안타깝게도 후손들의 관리 중에 대부분 유실되어 뚜렷한 근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대대로 족보나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해산 독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지상규가 매일 구봉산에 올라 어머니 병 환이 빨리 낳기를 기원하며 1년여를 기도한 끝에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구봉산 당우 물의 가물치를 달여 드리면 병이 꽤 차할 것 이란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꿈에서 깨 후 구봉산으로 한걸음에 달려가 보니 가물치가 있어 달여 드리니 병이 셧은 듯 나았다고 해요. 이러한 효에 대한 이야기가 내려오던 중 이후 고종 12년인 1875년에 효자 정문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져요.



14 남정유·남철 충효정려문 (南挺蕤·南撤 忠孝旌閭門)

소재지 : 화성시 매송면 송라1리 산 122번지
송라초등학교 뒷편

- 남정유 (1537년~1592년)

본관 : 의령

자 : 국록

임진왜란때 왜군과 싸우다 전사

추후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년 참찬관 추증

광해군1년(1609년) 충효 정려문 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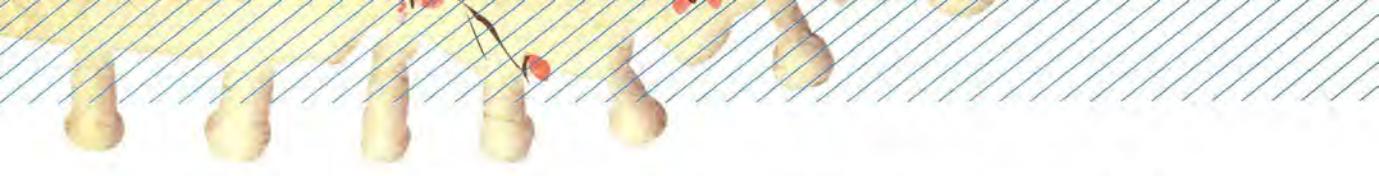
- 남철 (생몰미상)

본관 : 의령

남정유의 아들

숙종20년(1694년) 충효 정려문 하사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강원도 양양의 상운역 주변에 역도들이 자주 출몰하여 동네로 자주 침들어와 싸움을 벌였어요. 그러자 민심이 흥흉해지고 어수선하여 남정유가 마을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왜적 우두머리를 잡아 양양 연창역으로 보내졌고 그러던 중 왜적에 잡혀 끈질긴 항복의 권유를 받았으며 심한 욕설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고 오른손 세 손



가락이 질렸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내가 빨리 죽고자 하니 어서 죽여라'고 외쳤으며 왜적들은 일제히 가슴과 배를 난사하여 그 자리에서 왜군에 의해 처참하게 숨을 거두었어요. 의롭게 죽은 남정유의 충의와 절개를 높이 사 뒤에 찰방으로 승격되기도 하였어요.

상운역 역리인 홍방걸에 의하면 이 같은 내용이 전해지는데 그의 아들 남철은 왜적의 총칼에 무자비하게 난자된 그의 아버지를 안고 부축하며 옮부짖었으며 아버지와 끝까지 생사를 같이하며 왜적과 저항하다 두 곳에 창을 맞기도 하였어요.

후에 선조임금님은 이러한 보고를 받고 왜적과 끝까지 대항하며 죽을 때까지 굴하지 않고 곧은 절개를 보인 남씨에게 포상과 정려를 내리시고 그의 자손에게도 세금 인 호세를 면제하고 관직에 채용하라고 그의 아들 남철에게도 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왜적에 대항하고 아버지를 지킨 효도가 가상하여 관직을 제수하고 정문을 하사하였어요. 남정유는 1609년(광해군 1)에 충신에 정려를 받았으나 남철에 대한 포상은 즉시 시행되지 못하였다가 1694년(숙종 20)때에 이르러 정려가 내려 졌어요. 정려문은 원래는 광주시 중부면 탄리(현재 성남시청자리)에 있었는데 1970년 9월에 그 주변이 개발됨으로서 지금의 매송리 송라리로 이장되어 새로이 묘역이 조성되었어요.



알고
가기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인 찰방은 역리를 포함한 역민의 관리, 역마 보급, 사신 접대 등을 총괄하는 역정의 최고책임자였다. 또한 유사시에 북방지역에서는 합배(合排 : 함경·평안도 연안에 설치한 군사적 성격의 역촌)를 순행하면서 부방(赴防)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행정면에서는 대간이나 정랑직에 있는 명망 있는 문신을 차출해 지방 주현에 파견하여, 수령의 탐학과 민간의 질병까지도 상세히 고찰하게 함으로써 민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의 14대 임금인 선조시대의 실록과(25년 임진 10월조 권31 19장과 26년 계미 윤11월조 권45 34장)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신도편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상당히 그의 업적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

도움을 주신 분 : 지금진, 지원회, 지두진, 지원유 (서신면 상안리)





15 우상대 효자정려문 (愚相大 孝子旌閭門)

소재지 :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부모님을 위하여 10살인 상대는 어떻게 효를 실천했는지 알아보아요.

기록에 의하면 상대가 10살 때 상대의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어요. 아버지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 곁에서 정성을 들여 보살펴 드렸어요. TV연속극을 보면 임금님이 편찮으시면 임금님의 변을 맛보는 어의(임금님을 보살피시는 의사)를 볼 수 있을 것이에요. 10살인 상대는 아버지 변을 맛보며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단자를 하여 아버지에게 피를 먹였어요. 단자는 가족의 많이 아프면 병을 낫게 하기위해 손가락에 상처를 내어 피를 환자에게 먹이는 거랍니다. 어린 상대는 아버지를 위하여 변도 맛보고 단자도 하였지만 아버지는 2주일 후에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어요. 어린 상대는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슬퍼하는 상대의 모습이 그려지지요? 어린 상대가 부모님을 위하여 효를 실천한 것이 나라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정려문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상대처럼 부모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봐요.

상대가 태어난 해는 1804년이에요. 우상대가 사는 수원부에는 현릉원이 있어요. 정조 임금님이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현릉원이에요.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우상대도 정조 임금님처럼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실천하여 지극히 모셨어요.

도움을 주신 분 : 우호관 82세 (화성시 정남면 망월리)



16 정추 효자정려문(鄭推 孝子旌閨門)

소재지 :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정추(1650~1705)조선시대 숙종 임금님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공무원” 들어봤지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조선시대도 역시 나라와 백성을 위해 근무하려면 과거시험에 합격해야 해요. 정추는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평택 군수로 부임되었어요. 정추는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아 사퇴한 후 아버지를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보살펴드렸으나 병이 빨리 낫지 않아 병을 잘 고친다는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어떤 의원이 아버지의 병에는 잉어가 좋다는 말을 듣고, 겨울이었지만 잉어를 잡으러 한강으로 가서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추운 줄도 모르고 잉어가 올라오기를 기다렸어요. 정추의 마음이 통했는지 5일 후 큰 잉어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잉어를 집으로 가지고가서 고아드렸어요.

정추의 효심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정추는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 약을 지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 깜깜한 깊은 골짜기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호랑이 한 마리가 정추의 가는 길을 막았어요. 정추는 아버지 생각에 무서워하지 않고 호랑이한테 “이 놈! 나는 아버지가 많이 위독하여 좋은 약을 구해 집으로 빨리 가야하는데, 왜 길을 막느냐! 나는 호랑이가 산을 호령하는 동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를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모르겠느냐!”하면서 호통을 치니 호랑이도 정추의 마음을 알았는지 정추가 집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다른 동물이 접근

못하게 지켜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와요.

정추는 잉어와 호랑이 이야기를 빼고도 아버지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알 수 있겠죠? 정추의 아버지는 나이가 80세가 넘으셨지만 정추의 부모님에 대한 효심은 나이를 잊을 정도였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사랑해드리고, 보살펴 드려요.

정추는 효도뿐만 아니라 관직에 있을 때에도 청렴결백한 선정이 조정에도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요. 정추도 그런 사람이라서 효를 실천한 것이에요.

자신을 있게 한 부모에 대한 효도는 모든 일에 우선합니다. 효도는 매우 중요해요.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아요.

정추 효자정려문의 현판은 어천사(漁川祠).

도움을 주신 분 : 정재일(종친회장)



17 서백호 효자비 (徐伯虎 孝子碑)

소재지 : 화성시 남양동 남양성지내

유적현황 : 서백호(?~1953년) 본관은 달성

어느 날 서백호의 어머니가 병환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었어요. 집안 형편도 넉넉지 못하지만 그래도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하여 병 수발을 하였지만 백약이 무효였으며 차도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자식의 피와 살을 먹으면 낫는 병이라고 일러 주었고 또한 덧붙여 당부하기를 자식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소문이 나면 바로 돌아가시니 남 몰래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에 서백호는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망설임도 없이 한쪽 허벅지 살을 베어 어머니께 해드렸어요. 그래도 차도가 없자 다른 한쪽의 허벅지 마셔 또 해드렸어요.

물론 동네 사람들은 모르게 지극 정성으로 보살펴 드렸지만 3~4개월 연명하시다가 끝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서백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후에 동네 사람들은 평소 서백호의 효행을 보아왔지만 자신의 살까지 베어 해드린 것을 알자 매우 탄복하였다고 합니다.

서백호는 정성스레 예를 갖춰 북양리 공동묘지에 어머니를 모셨어요.

또한 그는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님의 묘소를 참배하였으며 어머니의 죽음을 몹시도 슬퍼하였고 때로는 그 슬픔을 못 이겨 묘소에서 자는 일도 비일비재 하였지요. 이렇듯 돌아가신 뒤에도 효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해요. 서백호의 효행은 남양뿐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알려졌으며 그가 세상을 떠나자 넉넉

하지 못한 집안 살림이란 걸 알고 십시일반 동네 사람들이 이것저것 거두어 초상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이에 서백호의 효행을 후세에 널리 알려 귀감이 되도록 수원군에서는 1922년 5월 15일 [효자서백호찬송비]를 지금의 남향 향교 쪽 일명 글판동에 세겼어요.

당시 문판비를 세울 때의 식순과 의손 명단 등을 적은 [효행찬송의손록], [효행찬송록], [효행찬송문]이 전해지고 있으며, 남양풍화당 당원들의 명의로 [서백호효행찬] 조선공도회에서 내려준 표창장 그리고 대문에 효자 표식 문패가 전해지고 있어요.

후에 장마에 효자비가 쓰러지자 남양동 1000번지에 다시 세웠고 개발로 인해 1999년 다시 남양성모성지 입구 오른쪽에 다시 옮겨 세웠지요. 현재 시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갔어요.

서백호는 1953년 6월30일에 사망하였으며 이때에는 그의 큰아들인 서용남씨가 군 생활 (1948입대)을 하고 있을 때였으며 1954년 여름에 휴가를 나와서 그의 아버지가 돌아간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당시 4 남매로 누님은 출가. 남동생은 군 입대. 여동생은 15살 정도였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효자 서백호를 북양리 공동묘지에 안장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서용남씨에 의하면 근래 공동묘지가 개발 되었지만 당시 개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신문의 이장공고를 보지 못해 할머니와 부모님의 묘가 무연고로 처리 되었다며 매우 안타까워 했어요.

도움을 주신 분 : 서용남 (수원시고등동), 서광석 (화성시남양동), 강신형 (서울시 신림본동)

徐公
許頌
不

18 홍술연 효자 정려문 (洪述淵 孝子 旌閭門)

소재지 : 서신면 전곡리 101

유적현황 : 홍술연(1808~1885)의 자는 기범이고,
본관은 남양, 홍희명과 초계정씨의 세 아들 중 둘째

효자각은 모지울 소류지의 바로 좌측에 남서향하고 있어요. 효자각은 1997년 4월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6월 준공한 관계로 정비가 잘 되어 있지요.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주심포 훌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며, 좌우에 방풍을 달아 놓았습니다. 또한 주위 ‘ㄷ’자형의 곡장을 둘러놓았어요. 효자각의 앞면은 원형 주좌위에 기둥을 세우고 홍살을 두른 반면, 나머지 3면은 시멘트벽으로 마감하였지요.

효자각내 정려문은 거의 옛 모습 그대로예요.

정려문의 내용은 ‘孝子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兼伍衛將洪述淵之門 上之卽位二十五年丁亥四月日 命旅’이며 송판에 백서하였져 있습니다.

고장에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홍술연은 효성이 참으로 지극했다고 해요.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홀로된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아름다운 일화를 남겼지요..

그의 아버지가 겨우 31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직 8세의 어린 아이였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장의 예절을 마치 어른과 같이 예법에 따라 하였으며 그리고 3년동안 정성을 다하여 시묘를 하였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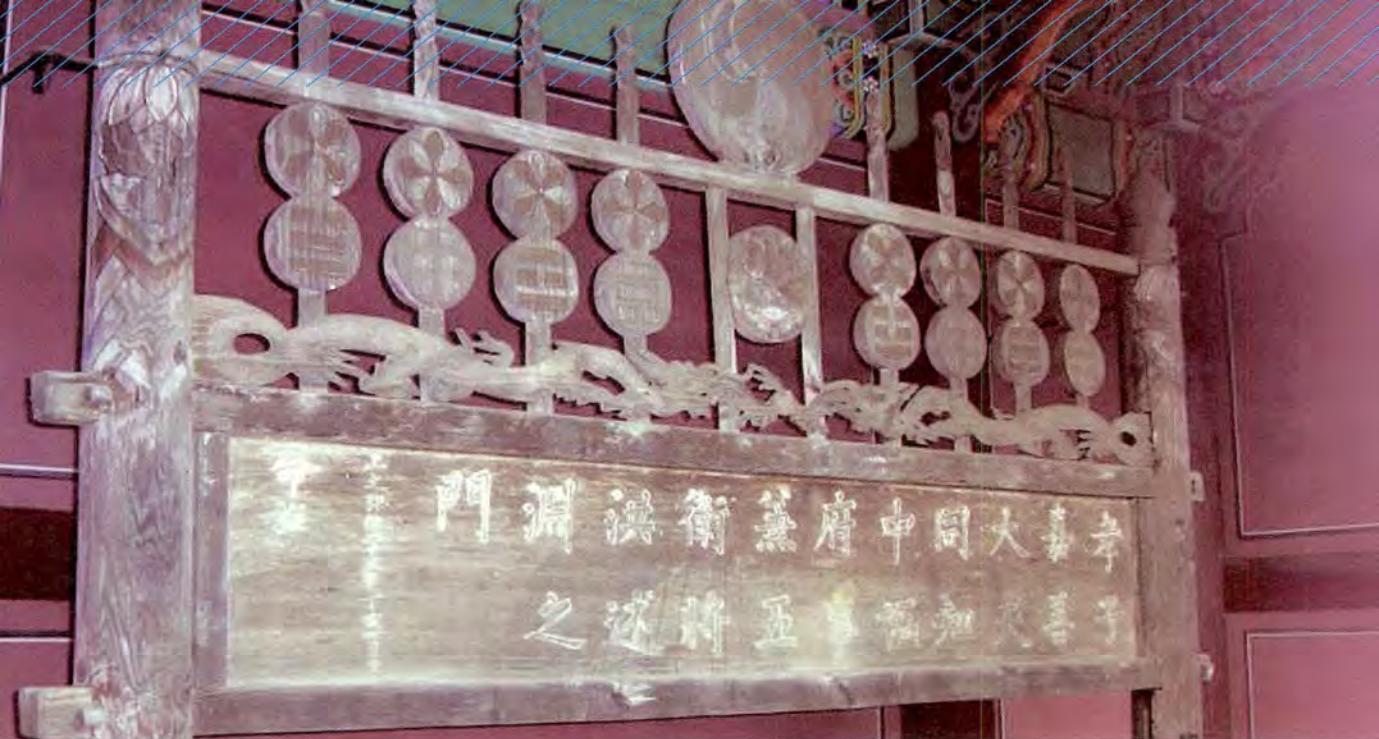
홍술연의 생활은 지극히 가난하였고 그래서 남양부에서 관리로 봉직하게 되었는데



점심때가 되면 냉수 한 그릇으로 허기를 채우고 관아에서 나오는 음식을 몰래 써두 었다가 퇴청할 때 가지고 돌아와서 어머니께 드렸다고 해요.

언젠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병환으로 어머니가 자리에 눕자 빈곤한 가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봉양을 하였지만 차도가 보이지 않자 그러던 어느 날 병간호를 하다가 잠시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는데, 모일모시 어느 곳에 가면 잉어 2 마리를 구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잡아 폭 고아서 봉양을 하면 병이 쾌차할 것이라는 선몽을 해주었어요.

그는 엄동설한인 동지설달에 잉어를 구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도 꿈이 생생하여 낚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칠년대한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마을 샘터로 나가서 꿈속에서 일러 준대로 얼음을 깨고 낚시를 드리웠어요. 그리고는 간절한 하늘에 빌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지극한 효심에 하늘이 감동 하였던지 커다란 잉어 두 마리가 연거푸 낚시에 걸려서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들고 집으로 한시바삐 돌아와 정성스럽게 고와서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병환이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해요. 이는 마치 왕상의 빙리 이야기와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이 샘터를 두 마리의 잉어를 잡은 곳이라



하여 ‘두 손 우물’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러나 안탑갑계도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

현판의 상부 태극무니 뒷면에는 어명이라고 새겨진 글이 있는데 이것은 홍술연 효자 정려문이 왕명으로 세워졌음을 뜻하고 그 글씨는 예서로써 품격이 높은 명필임을 알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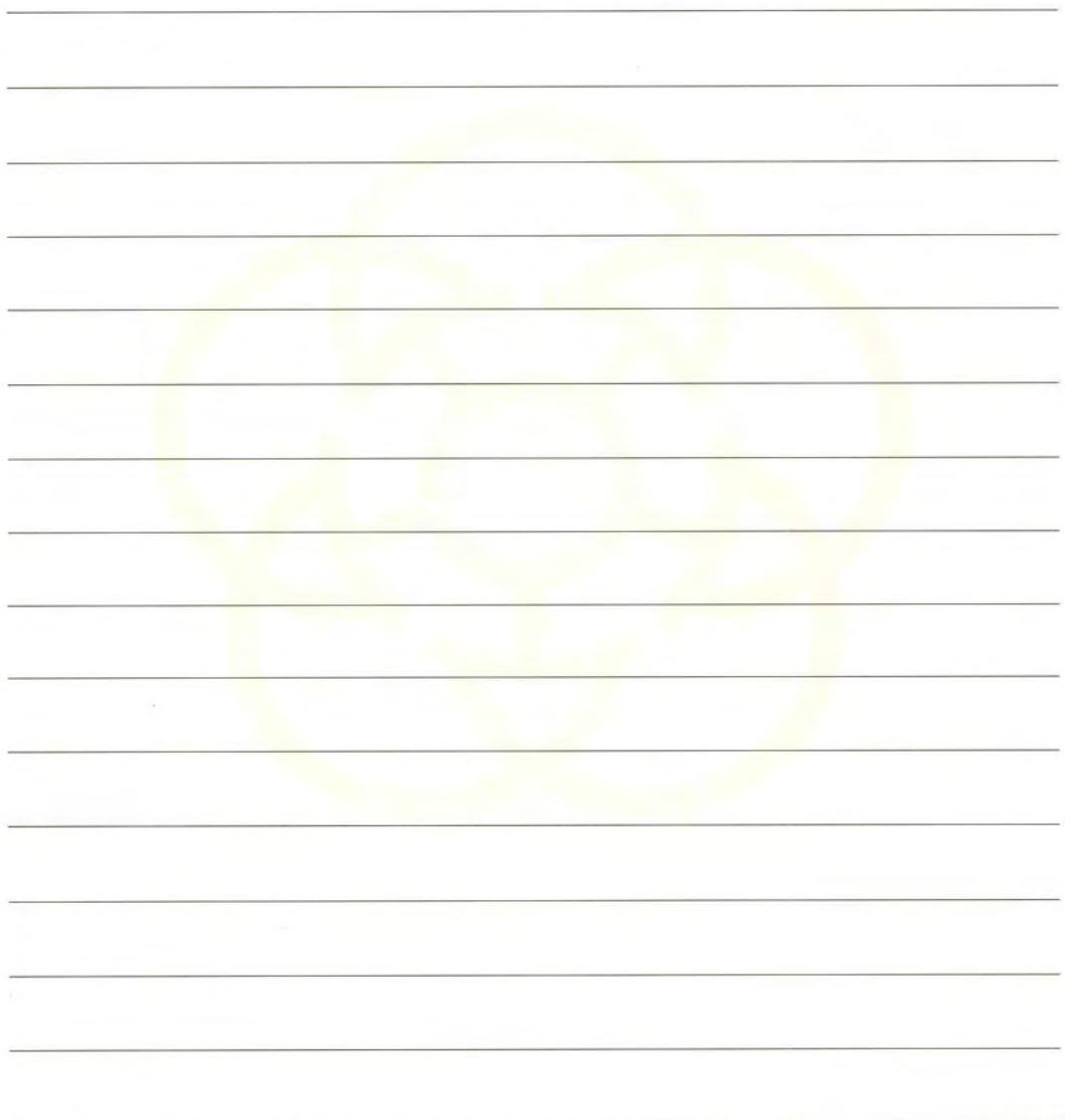
태극 상부에 있는 조각은 태극과 어명의 지중함을 더욱 돋보이도록 서기를 표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삼강이 인간에게 대강령이 되므로 그것을 통하여 충신 효자 열녀가 되라는 교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팔괘의 중앙에 있는 원형속의 음양각은 용으로써 임금을 상징하고 또 복을 불러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본 정려각의 현판은 대신들과 임금이 공의효행에 감탄하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목 있게 품격을 고려 하여 제작한 것이예요.

이 홍술연 효자 정려각은 그동안 현판이 헛간에 보관되어 왔으나 1997년 4월에 정려각에 대한 복원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6월에 완공하였다고 해요.

도움을 주신 분 : 서용남 (수원시고등동), 서광석 (화성시남양동), 강신형 (서울시 신림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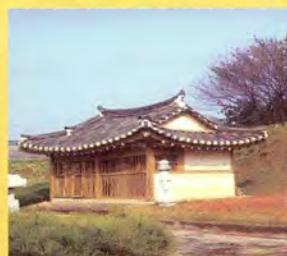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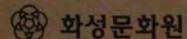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화성문화원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10

화성의 효 이야기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시리즈

-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01 – 융릉 · 건릉
-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02 – 용주사
-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03 – 공룡알 화석지
-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04 – 화성 3·1운동 유적지
-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05 – 화성8경
-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06 – 화성
-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07 – 화성시의 옛이야기와 민속
-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08 – 화성의 인물
-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09 – 세계유산
- 신나는 문화유산 방문교육 10 – 화성의 효 이야기

이 교재는 화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화성문화원에서 제작 · 보급하는 소중한 책입니다.

효

라 함은 보통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을 말하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간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천륜이다. 효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형성된 원초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하며 그 관계는 원만하고 올바른게 지키고 보존하는 질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모든 행동의 근본이 되는 백행지원이라 했다.

이 책 한 권이면
우리나 문화유산에 대한
공부 끝~



비매품

9 791195 163014
ISBN 979-11-951630-1-4

